

한국 현실에 적합한 노동교육 모형 탐색

- 노동교육의 용어와 쟁점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 민 호*

〈 목 차 〉

I. 머리말	2. 노동교육의 목적
II. 노동교육 관련 용어들의 재해석	3. 노동교육의 내용
1. 외국의 노동교육 관련 용어	4. 노동교육의 방법
2. 우리나라의 노동교육 관련 용어	5. 노동교육의 대상
III. 노동교육의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6. 노동교육의 제도
1. 노동교육의 주체	7. 노동교육과 사회의 관계
	IV. 맺음말: 한국 현실에 적합한 노동교육 모형 탐색

I. 머리말

어느 사회에서든 교육은 그 사회가 처한 객관적 조건들-크게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작게는 학급규모에 이르기까지-과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의 노동교육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노동교육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교육을 둘러싼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과 노동교육 관련 집단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교육 추진 주체들(사용자, 정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어떻게 노동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을 개발·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간혹 노동교육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노동교육을 사회학, 정치학 또는 경제학의 시각에서 접근했을 뿐이다. 노동교육을 하나의 교육현상으로 인식하고 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교육적 적합성을 교육주체와 사회적 조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 노동교육의 교육적 적합성에 관한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교육주체와 사회적 조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노동교육을 접근했던 몇 안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우리의 노동교육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개념모형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노동교육 관련 용어들을 본래의 의미를 살려 번역함으로써 직역 사용에 따른 개념적 혼란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동교육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본 연구에서는 '노동교육'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려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노동교육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노동교육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제도 및 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분류하여 그것들의 교육적 적합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노동교육 모형의 구비 조건을 탐색할 것이다.

II. 노동교육 관련 용어들의 재해석

노동교육에 관련된 국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그 용어들이 가리키는 뜻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용어 사용자의 사용목적 등에 따라, 같은 표현이라 해도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노동교육을 논의할 때, 외국의 노동교육 관련 개념들을 그 사용 맥락을 간과한 채 직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오해와 의혹마저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교육 관련 개념들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노동교육'이란 용어를 어떤 뜻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1. 외국의 노동교육 관련 용어

가. Worker's Education ('노동자 교육' 또는 '노동자 대상의 노동교육')

'Worker's Education'이라는 표현은 영국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노동자 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 대상의 교육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Worker's Education이 가리키는 바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나라마다 시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영국의 Worker's Education은 대학과의 협력 아래 노동조합 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기업의 협조는 없음), W. E. A. (노동자 교육협회)나 N. C. L. C. (노동자대학 전국 협의회) 등의 노동자 교육단체가 교육주체로서 자리 잡는다. W. E. A.는 교양교육에 주력한 반면에 N. C. L. C.는 정치교육 중심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Peers, 1972).

반면에,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의 Worker's Education에는 노조만이 아니라, 대학·사회주의정당·교회 및 지역사회 센터 등이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했으며, 주정부·연방정부·개별적 후원자 및 기업 등이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자 교육을 통해 사회체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는 교육주체마다 다소 달랐다. 사회주의 정당이 주도하는 노동자 교육에서는 노동

자 계급의식 함양과 사회질서의 변혁을 '기본목표로 삼은 반면, 대학의 노동자 교육은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노동자 개인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자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Dwyer, 1977 : 180-186).

위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Worker's Education은 '노동자 교육' 또는 '노동자 대상의 노동교육'으로 번역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Worker's Education의 특징이 바로 교육대상에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 교육(Worker's Education)이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그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보다 많이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지성적으로 파악하며 그 문제들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일반 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교양과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이나 산업화의 적용에 필요한 정치적·기술적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정당, 민간단체, 대학, 기업 및 정부 등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리킨다고 정의할 수 있다.

나. Labor Education ('노동조합원 교육' 또는 '노동조합원 대상의 노동교육')

'Labor Education'이란 표현은 미국에서 1930년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널리 사용되었다. 경제 대공황으로 교육보다는 노동자의 생존이 시급했기에 Worker's Education은 쇠퇴해 갔고, 1930년대 노동법으로 노동운동이 합법화되고 실용주의 노선(Gomperism)의 노동조합 결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Worker's Education은 점차 Labor Education으로 대체되었다(Calson, 1971; Dwyer, 1977 : 187-195). Labor Education이 Worker's Education과 같은 점은 교육을 위해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조합 밖의 노동자 대학, 일반대학, 노동자교육협회 및 정부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Worker's Education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대상이 조직노동자(노동조합원)에 국한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교육내용도 조합원 내지 조합임원으로서 조합에의 참여와 운영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실무적 지식, 태도 등 공리주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며, 일반적인 교양¹⁾이나 직업기술²⁾ 등은 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노동조건 변화 및 노동자 조직의 권리와 책임의 증대 등으로 노동조합원으로서 배워야 할 지식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Whitehouse, 1989). 따라서 Labor Education은 '노동조합원 교육' 또는 풀어서 '노동조합원 대상의 노동교육'이라 번역함이 합당하겠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노동교육'으로 직역해서는 안된다. (노동교육의 의미는 다음 절에 소개할 것임)

다. Labor Studies ('노동자 대학교육' 또는 '노동자 대상의 대학교육')

'Labor Studies'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Labor Studies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족과 계급문제를 연구하고 배우려는 동기에서 대학의 정규강좌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노동자들 또한 취업과 관련하여 학위취득 욕구가

증가했고 또 단체교섭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특수한 위상 등으로 말미암아 대학 수준의 교육이 필요했다. 그 결과, 대학(교)들이 학위를 인정하는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노동조합이 대학과 연계하여 Labor Studies Center를 개설하고, 대학보통교육협회(U. C. L. E. A.)가 지원하는 community college와 state college의 Labor Studies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학위과정이란 비학위과정이란 Labor Studies의 특징은,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조화를 증진하도록 대학이 공리주의적 '도구'교과와 인문주의적 '교양'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경험에 관한 보다 폭 넓고 체계적인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개인, 노조에 기여하는 노조원,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 내는 데 있다. Labor Studies는 대학확장의 프로그램³⁾으로서 또는 학위과정으로서 운영된다(Dwyer, 1977 : 195-205).

한편, 미국의 Labor Studies에 대응하는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비학위과정으로서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노조간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각 1966년과 1967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위과정으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에 개설된 인사관리 전공, 노사관계 전공 특히 1989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송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노사관계학과, 노동경제학과, 노동정책학과) 등이 있다(김성진, 1978; 김수근, 1990). 따라서 Labor Studies는 '노동자 대학교육' 또는 풀어서 '노동자 대상의 대학교육'이라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라. Working-class Education ('노동계급 교육' 또는 '노동계급 대상의 노동교육')

'Working-class Education'은 노동자들의 교육적 경험을 보다 폭 넓은 노동계급 문화 속에서 다루기 위해 등장했다. 이 때, 계급은 하나의 객관적 범주가 아니라 어느 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역사적 관계이며, 따라서 오늘날 노동계급 범주 안에는 블루칼라만이 아니라 노동과정의 변화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가면서 소유주나 경영자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느끼는 화이트칼라도 포함된다. 즉, 노동자를 단지 경제적, 직업적 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동질적 문화집단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노동자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다. 바꿔말해 Working-class Education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소유자 내지 경영자의 통제에 복종해야 한다는 노동계급으로서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꾸려 가려는 노동자 문화의 폭이 작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환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자 목적 성취를 위한 투쟁의 어느 한 측면으로서 생긴 것이다. 이 교육에서는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온 노동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직무기술이나 노조운영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 계급의식, 조직에의 충성심 및 참여의식 교양 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최근 선진국의 Working-class Education에서는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 및 자기 결정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Working-class Education은 그 목적과 내용이 종전의 Worker's Education, Labor Education 및 Labor Studies를 포괄한 만큼 다양하면서도, 그것이 노사간의 계급적 대립을 전제로 하는 노동운동의 과정 속에서 창출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Hellyer & Schulman, 1989).

이 때 유의할 점은 Working-class Education이 노동운동을 위한 것이되, 하나의 단기간의 선전(propaganda)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교육(education)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이다. 아 물론 Working-class Education은 그 성격상 '노동계급 교육' 또는 좀더 풀어서 '노동계급 대상의 노동교육'이라 번역 하는 게 좋겠다.

마. 勞 動 教 育

勞動教育이란 용어는 1950년 경 일본 정부가 경제재건을 향한 건전한 노동조합운동을 목표로 노동성 노동국에 勞動教育課를 설치한 데서 비롯한다. 이 때 노동교육행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발전하여 그침이 없는 자유민주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및 이와 타와의 존재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이고도 사회적 제 관계의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조화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그 후 노동학회, 노동교육연구회가 발족되기도 한다. 아 물론 일본 정부는 시대적으로 부각하는 노사문제를 건전한 방향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동조합원과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계몽적 성격의 勞動教育을 추진한 것이다 (정우현, 1990).

2. 우리나라의 노동교육 관련 용어

가. 노동교육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이란 표현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나,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동교육을 사회교육의 한 분야로 이해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노동교육을 바라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노동교육의 이념을 개인의 인간적·직업적 성숙에서 찾는 반면, 후자는 노동운동을 위해서 집단적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강조한다.

먼저, 노동교육을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여기는 입장을 살펴보자. 이 경우도 노동교육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 견해가 제시된다. 노동교육을 폭 넓게 보는 입장으로는 정우현(1988), 김승한(1988), 김운환(1990) 등을 들 수 있다. 정우현(1988)은 한국사회교육협회 연차대회에서 인간의 본질은 이성과 노동임을 전제로, '평생교육'을 인간의 상호신뢰적 삶을 모색하는 '인간교육'(규범교육)과 인간의 실제적 삶을 향상시키는

‘노동교육’(생활교육)으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노동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줌과 동시에 노동으로 인해 배태되는 인간소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노동교육이야말로 사회교육의 모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승한(1988)에 따르면 노동교육은 단지 education for workers(노동자의 권익신장, 인간적 직업적 성숙)만이 아니라 education for work(직업준비교육)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교육대상에 취업 중인 성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취업 전의 어린이·청소년까지도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직업훈련기관만이 아니라 정규학교에서도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김운환(1990)은 노동교육을 노동문제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할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와 국민 일반까지도 실시하는 성인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다만 노동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일반 교양교육을 노동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정우현이나 김승산의 견해와 다르다.

한편, 노동교육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견해로 박창규(1988), 정우현(1990) 등이 있다. 박창규(1988)는 노동교육을 노동조합 교육과 구별하여, 노동조합을 제외한 사회교육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한정시킨다. 정우현(1990)은 이 보다는 넓게 그러나 1988년의 연구보다는 좁게, 노동교육을 노사간의 협력을 위해 노동조합원과 노사관계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제한했다.

다음에는 노동교육을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견해를 살펴보자. 김금수(1988a)에 의하면, 노동교육의 활동의 임무는 "노동대중의 투쟁과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준비와 참가전력으로부터 거해지는 사상공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주체적 자각을 교양시키는 데 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노동교육의 특징은 교육내용으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데 있다. 다만, 노동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강조하는가가 학자들마다 다르고, 따라서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범위에도 견해 차가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교육은 그 이념에 따라 사회교육으로서의 노동교육과 노동운동 영역으로서의 노동교육으로 대별되고,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성인 노동자(선진 노동자/대중 노동자, 조직 노동자/미조직 노동자)대상의 노동교육, 청소년 노동자 대상의 노동교육, 학생 대상의 노동교육으로 구별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교육을 Labor Education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

나. 노동자 교육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교육’ ‘근로자 교육’이란 표현은 김성진(1977:1978), 김금수(1988a), 박세현(1990)의 연구물에서 나타난다. 김성진(1977:1978)에 의하면, 노동자 교육이란 노동운동 자체조직이나 이를 지원하는 단체가 또는 정부나 기업 등이 사회발전의 증진, 인간권리의 존중, 민주적 제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자유민주적 노동조합의

발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로 일반교양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김금수(1988a)는 노동자 교육의 목표를 “노동자의 눈앞의 직업적 이익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전 노동대중과 광범한 민중들의 장래에 걸친 이익을 위해 행동 할 필요성을 자각케 하는 데” 두면서 정치교육 차원에서 노동자 교육을 조망하고 있다. 박세현(1990) 역시도 노동자 교육이 노동계급의 성장에 따라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고 보면서, 노동자 교육을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노동자 교육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계급적 예측상태에 대항하여 노동대중의 투쟁과 조직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이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고양하며 그 해결의 주체가 되게 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최근에 와서는 ‘노동교육’이라는 용어가 그 사용이 빈번해지고 학술용어로 정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노동자 교육’은 ‘노동자 대상의 노동교육’으로 풀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노동자 대상의 노동교육’의 내용으로는 직업교육, 교양교육 및 정치교육 등이 있겠다. 한편, 노동자 교육에 해당하는 외국 용어로는 Worker's Education이 적합하겠다.

다. 노사(관계) 교육

노동교육 관련 용어로서 우리가 이제껏 사용해 온 것 중에 ‘노사(관계)교육’이라는 표현이 있다. 김수곤(1990)에 의하면, 노사관계 교육이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면서 인본주의적 기반위에서 노와 사가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타협으로서 평화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시설 및 기관을 통해’ ‘근로자나 기업가만이 아니라 정부와 입법 및 사법부 그리고 언론계 심지어는 문인들, 종교인들까지도 그들이 오늘날 우리 산업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큰 만큼 그들이 노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관계 교육’은 일종의 노동교육이되, 노동문제 중에서 특히 노사관계에 주목하여 노사간의 협조를 지향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한편, ‘노사관계 교육’은 노동자나 경영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형태가 굳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근로자⁵⁾, 사용자⁶⁾, 정부⁷⁾ 주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Labor Studies와는 구별된다.

라. 노동자 대중교육 또는 노동자 정치교육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대중교육 또는 노동자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는 노동운동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박세현(1990)은 노사대립을 전제로, 노동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의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서 노동자 대중교육의 ‘의의’를 찾는다.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 추진위원회(1993)에서는 노동자 정치교육을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발달시키고” “혁

명적 활동성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계급의식은 오직 사회주의의 이론체계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하여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위 두 경우가 노동자대중교육 또는 노동자 정치교육을 노동운동의 수단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서인영(1988)은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이며, 노동운동의 주인은 노동자임을 전제로 노동자 대중교육을 노동운동이라기 보다는 교육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⁸⁾.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교육과 한국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교육으로부터의 소외 극복,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 및 민족자주문화교육을 노동자 대중교육의 목표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교육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의한다.

요컨대, 노동자 대중교육 또는 노동자 정치교육이란, 그 용어 사용에 따라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긴 하나 자본가와 적대적인 계급으로서 노동자의 의식을 각성시켜, 주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노동해방'을 쟁취하려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앞서 Working-class Education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이상에서 노동교육과 관련된 국내외의 여러 용어들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교육'이란 용어는 학자들 사이에 그 의미가 아직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정확히 해당되는 용어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교육'이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의 독특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구안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교육을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노동교육이란, "노동자나 사용자, 정부, 대학 및 민간단체들이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문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및 국민을 상대로 직업교육, 교양교육 및 정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연구의 편의 상 노동교육을 '노동자 대상의 노동교육'(이하 '노동교육'으로 줄여 씀)에 한정한다.

Ⅲ. 노동교육의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본적으로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및 교육과정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제도와 이 모두를 둘러싼 교육환경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노동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나타난 이제까지의 쟁점들을 노동교육의 주체, 노동교육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노동교육의 대상, 노동교육 제도 및 노동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묶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완결되었다기 보다는 아직 발전과정 중에 있으므로, 그 쟁점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노동교육과 관련된 쟁점들이 주로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부각되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된 적이 드문 편이므로, 우리 사회현실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재구성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노동교육 이론을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

1. 노동교육의 주체

산업혁명을 계기로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노동계급의 자녀들이나 노동자들은 대부분 교육의 주변부에 놓여 왔다. 즉, 산업화와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한 초보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뿐 중등 또는 고등 수준의 교육기관에는 경제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아예 접근조차 허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자유주의적 박애주의자들, 종교단체, 대학과 노동조합 등이 주도하는 다소간의 노동교육 프로그램들이 노동자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후 나라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정규 중등학교의 교육기회가 노동계급의 자녀들에게도 점차 주어져 갔고, 성인교육으로서의 노동교육이 국가 주도 하에 제도화된 경우도 종종 생겨났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셈이다.

이를 두고, 지배계급들은 ‘노동자 주체의 노동교육 불필요론’을 역설한다. 즉 기존의 정규 또는 성인교육 시설들이 노동자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할 때, 노동교육기관들은 자칫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을 선전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객관적 교육일지라도 노동자들로 하여금 혁명적 행위를 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Schneider, 1941 : 9).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우리 나오는 지적, 실용적 관심들을 해소하기엔 기존의 교육체계가 부적합하다고 느꼈다. 즉 중등 또는 고등교육의 벽은 아직도 너무 높은 편이며, 자신들의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여러 가지 노동교육 프로그램들은 노동자가 아닌 다른 집단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학습욕구에 불일치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920년대 미국 대학의 노동교육(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노동교육마저도)은 당시 미국 노동자들의 사회변혁에 대한 관심을 채우기엔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대학 자신의 이념에 비추어 노동계급의 경험을 평가절하 하였다. 따라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노동교육의 주체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솟아났다. 그 결과 오직 노동자 자신이 노동교육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자신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독자적인 노동자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노동자학교는 재정적 독립과 아울러 당시의 기업노조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산별 노조 결성의 정당성을 알렸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노동자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및 행정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학교 일에 관여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호전적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Altenbaugh, 1980 : 174-220).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교육의 주체로 등장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의 관심을 교육적으로

답하는 데 성공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지도적 위치의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 대중들의 학습욕구를 과연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또한 노동자 가운데서도 소외된 여성 노동자, 소수민족 노동자(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농업 노동자나 서어비스업 노동자 등의 교육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런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다. 바꿔 말해, 노동교육의 통제권을 두고 노동자와 비노동자 간의 대립 갈등 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간의 갈등도 모든 노동자의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노동교육의 목적

노동교육의 목적은 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및 정치적 맥락과 교육대상인 노동자의 노동력의 유형 그리고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주체의 이해올로지 등에 따라 다르다. 다만 대부분의 노동교육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교육목적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가 되는데 필요한 직업적, 기술적, 지적 기술(skill)의 획득, 둘째 노동자로서 자기 확신감, 노동의 준엄성, 및 긍정적 자아개념의 획득, 셋째 노동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 향상하는 방법의 이해, 넷째 노동자의 지위, 권리 및 위상, 노동의 국제적 분업 그리고 자본의 조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힘들에 대한 이해 등이다(Pandey, 1980).

그런데 실제 노동교육 프로그램내에서 위의 네 가지 목적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원 주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된 교육목적들이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자의 실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술교육이나 자아존중감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노동자가 처한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노동교육을 '교육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초반 소위 <야학논쟁>이 전개 되었다. 야학을 노동운동의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은 배우는 학생의 대다수가 노동자이며, 노동자에게 노동문제와 사회모순을 일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내용도 노동운동에 필요한 요건들로 채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야학 조직도 노동운동 조직의 주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학을 교육운동으로 보는 관점은 야학의 존립근거가, 교육주체와 대상이 누구이건간에, 일차적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교육에 있으므로 야학은 노동운동과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말해 노동자에게 노동문제에 대한 형식적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노동자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사상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서인영, 1988 : 51). 하지만 교육운동으로서 노동교육을 이해하려는 입장은 노동운동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조하는

풍토속에서, 그리고 교육운동으로서 노동교육의 조직에 대한 논리부족으로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88년 노동운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가 붓물처럼 터지면서 다시금 재연되었다. 김금수(1988a)는 노동교육을 노동운동이 아닌 교육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교육주의'적 오류에 빠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교육이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수준의 실천적 투쟁과 결합할 때만이 대중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으며, 교육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계몽적이길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인영(1988)은 노동교육의 목적이 노동자의 교육적 소의를 타파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극복하며, 민족자주문화를 정립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교육운동의 차원에서 노동자 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충실해야 하며, 제도화되고,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교사의 자질함양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교육을 '노동운동'의 실천적 관심이나 '교육운동'의 이론적 관심에만 한정하는 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일의 세계와 노동자 조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작업세계 밖의 삶의 조건에도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의식은 단지 교실안의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대중적 실천을 통해 각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실천적 과정을 통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자각하고 노동현실을 변화시키며, 여러형태의 사회운동을 통해 주거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각성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할 때 노동교육의 목적은 비로소 완전히 충족될 것이다.

3. 노동교육의 내용

노동교육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교육내용으로 다룬다.⁹⁾ 그러나 노동문제란 과연 무엇이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양 각색이다. 그만큼 노동교육에서 다룰 교육내용의 종류와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한 두가지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선 노동문제의 범주와 시각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노동문제를 일의 세계나 노동자 조직활동에서 노동자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주로 한정하여 생각했다. 그러나 보다 넓게는 노동자가 사회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딪치는 문제들 및 자본가나 국가가 생산활동 또는 노동정책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노동문제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서 일의 세계 밖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 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와 이에 관여하는 국가 역시도 노동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바꿔말해 우리는 노동자의 소의를 생산을 중심으로 파악해 봤지만 사회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의 소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자의 제반 소의현상 극복이 노동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가, 육아, 교육, 주택, 건강, 인권, 환경파괴,

지역분규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노동교육에서는 다뤄야 한다. 아울러 자본과 국가의 관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노동자는 단순히 노동하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속의, 세계 속의 인간으로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도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성숙해짐은 물론이고¹⁰⁾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향상만이 아니라 사회발전¹¹⁾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노동교육의 내용을 검토할 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노동교육내용의 통합성, 현실성이다. 노동교육에서는 일의 세계, 노동자조직의 의미와 실재, 사회속의 노동자, 인간으로서의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덕목을 통합적으로 갖추되 즉, 노동자 기술교육, 정치교육, 교양교육을 결합하되, 노동자의 삶의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는 노동교육이 노동자의 삶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해야함을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분업화된 사회의 기능인 양성에 머물거나, 김금수(1988 a)의 표현대로 '교육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노동교육의 방법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자신과 세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감수성을 갖춘 지성인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혹은 "노동자를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하려면 노동교육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생겨났고, 이러한 질문을 두고 노동교육 종사자들과 학자들은 오랫동안 고심하여 왔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처럼 '훈육' 또는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인류문화 유산인 이론적 지식을 성인 노동자에게 가르쳐 이들의 지성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성인 노동자의 생활 경험을 반성적 사고를 통해 조망하고 조금씩 조금씩 지성을 키워 나갈 것인가. 성인이 아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의 세계와 단절된 아동교육에서는 지적 탐구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의 지성을 개발하는데 충분하나, 일하는 성인 노동자에게는 생활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이론적 질문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꾸어 말해, 성인은 실천적 관심이 이론적 관심보다 우선하므로 성인의 지성을 개발하는데는 생활 경험을 매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성인 노동자 교육에는 사회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인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가(적어도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 노동자 대상의 노동 교육에서는 선전, 선동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운동과의 관련성에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그러한 선전, 선동의 방법이 우리의 노동교육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선전, 선

동의 방법이 과연 교육적¹²⁾이라 할 수 있는가이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체계적 선전을 교육 노선으로 채택하였던 인천 「노동자 대학」의 사례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인천 「노동자 대학」의 자체 반성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아무리 구체적 사례의 풍부한 활용으로 체계적 선전을 보완코자 했어도, 귀납적 사고 방식에 익숙해 있는 노동자에게 연역적 사고를 요구하는 체계적 선전의 교육 방법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고, 피교육자로 하여금 “어렵다”, “강의가 실천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전민교협, 1993 : 37).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람시의 경우만 해도 피교육자의 ‘상식’의 세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 인식과 정치 의식의 형성을 모색¹³⁾했다는 점은 노동교육의 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Hoare & Smith, 1971 : 321-322; 328). 오히려, 체계적인 선전보다는 노동자 자신의 실천적 행위(일, 투쟁, 조직)들 안에서 노동자의 학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ICAIE, 1986).

다음으로, 선전, 선동의 방법이 과연 교육적인가의 문제이다. 독일 노동교육의 변천과정으로 분석한 퇴리히(1986)는 “모든 노조의 교육 활동은 사회적 쟁점들을 위한 목적 교육이다”라는 70년대 초 독일 금속 노조의 강령은 교육학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정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 목적을 스스로 안에 지니고 있으며,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것을 만들어 이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며, 인간은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 노동교육의 대상

노동교육의 대상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교육의 대상을 몇몇 지도급 노동자에 국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운동의 성장이 노동자 조직의 확대를 수반하고, 노동자 조직의 확대는 조직 지도부와 노동자 대중간의 간격을 메워 줄 노동문제 전문가의 양성을 요청하였기에 교육 대상자는 더욱 넓혀져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노동교육기관들을 살펴보면, 정작 찾아 와야 할 노동자들이 감소하고 있으며(그것도 조직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편임), 일부 대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87, 88년 이후 노동자들의 학습욕구가 고조되다가, 90년 이후 감퇴한 까닭은 무엇인가. 한 가지는 노동교육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노동교육 역량이 축적되지 못해 노동교육기관들이 노동자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질적 노동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객관적 정세의 변화이다. 정부의 유화적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희석시켰고, 그만큼 노동운동을 위한 학습 욕구도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대신, 노동자 개인의 지적 욕구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증가한 편이다. 또 다른 이유

는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모집단의 이념과 사업에 맞추어 학생들을 활용한 경우도 없지 않으며, 순수한 교육적 사업이 되지 못했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증도에 이탈했다(전진교협, 1993). 여기서 한 가지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민간 주도의 노동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가입과 탈퇴가 학교교육에 비해 자유롭다는 점이며, 따라서 교육대상인 학습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대상자를 모을 수 없다는 점이다.

6. 노동교육의 제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노동교육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노동교육자를 살펴 보면, 역설적이게도 노동교육의 제도화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학습욕구 충족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1920년대 초반 미국 대학이나 노동조합들이 마련한 노동교육은 노동자의 학습욕구 충족에 이용되고 노동자의 계급의식 함양에도 장애요인이 되었다. 대학,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지닌 정치적 관계상황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동자들을 측면적인 노동교육 제도의 출현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개발이 기만히 팔방미안 게 알아 있게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노동교육 제도가 비례제본주의(Proportionalism) 전형을 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사리잡지 않고도 적당히 공평한 기회 충족을 기중이게 된다. 단행적(노동자를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위기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약해지고 '저항적 정치공간'이 확장된 틈을 타서 급진적 성향의 노동자들이 비집고 들어 서러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지향적인 급진적 노동자들과 실리적 성향의 노동자 대중 간에는 인식의 격차가 뚜렷하고, 급진적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사회변혁노선에 차이가 큰 상황에서¹⁴⁾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독자적인 교육조직 공간'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89년 경부터 시도되어 왔던 인천 「노동자대학」의 설립운동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 준다(김민호, 1993).

다른 한편, 기존의 제도화된 노동교육기관들은 노동자들의 개로운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장애요인이라기 보다는, 일반 노동자 대중에게 보다 많은 노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반이고 물질적 노동자들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일련 중심'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서원영, 1986; Youngman, 1986). 이들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적 사상은 그에 상응한 물질 토대의 변화 없이도 즉 독립된 노동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튼 노동교육제도가 노동자의 학습욕구 충족의 안정적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새로운 관심의 추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자 학습

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교육 제도의 성립과 대체과정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중적 노동교육기관에서 진보적 사상이 형성·발전할 수 있는지도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7. 노동교육과 사회의 관계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노동교육 역시 어떤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에서 진행된다. 또한 그 사회적 조건은 노동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조건의 하나인 학교교육은 노동교육의 발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1920년대 미국 노동교육의 사례는 학교교육의 한계가 노동교육 발전의 계기였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노동교육이 발전하려면 학교교육은 더욱 나빠지고 많은 한계들을 노출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교육의 발전을 학교교육의 발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과 학교교육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학교교육 외에 노동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편, 노동교육을 통해 사회를 보다 발전시킬 수는 없는가? 자유주의적 노동교육론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통해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인문 교양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급진적 노동교육론에서는 노동계급이 대안적 헤게모니를 형성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발전 즉,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노동자 정치교육에 주력한다. 그러나, 노동자 교양교육과 정치교육은 별개의 실체인가? 아니면 단일한 교육활동의 다른 측면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데 불과한 것인가? 만일 후자의 경우가 성립한다면, 즉 노동자가 교양을 쌓는 가운데 정치의식을 습득하거나, 정치의식의 함양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교양을 형성할 수 있다면 노동자 교양교육과 정치교육을 상호 결합하여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 한국 현실에 적합한 노동교육 모형 탐색

이제까지 노동교육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제도 및 노동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던 논쟁점들을 나름대로 분석·검토하였다. 그 결과 노동교육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문제점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현실에 적합한 대안적 노동교육 이론의 구비 조건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노동교육의 주체

기존의 논의를 ‘노동자 주체 노동교육 불필요론’(이하 ‘불필요론’)과 ‘노동자 주체 노동교육 당위론’(이하 ‘당위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필요론’은 노동자 학습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당위론'의 경우 그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집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즉 노동자와 비노동자 간의 교육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노동자가 이긴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학습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간에 교육의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도급의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중심부의 노동자(다수민족, 남성, 대기업, 공업 노동자 등)와 주변부 노동자(소수 민족, 여성, 소규모 영세업, 하청, 농업이나 서비스업 노동자 등) 간의 학습권에 대한 차별이 그렇다.

2. 노동교육의 목적

노동교육의 목적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노동운동 영역으로서의 노동교육론'과 '교육운동으로서의 노동교육론'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노동자의 삶의 실천 속에서 노동교육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그 실천을 노동운동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 우를 범했다. 반면에 후자는 노동운동으로부터 노동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노동자의 삶을 폭 넓게 봤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교육의 결과가 실천에 이르지 못해 '교육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입장을 통합하여 노동자의 삶 전 영역-일의 세계, 노동자 조직 및 일 밖의 사회인 혹은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삶-에서 노동자의 경험과 사회적 실천에 바탕을 두는 노동교육 이론을 모색해야 하겠다.

3. 노동교육의 내용

기존의 논의에서는 노동교육의 내용을 노동문제에서 찾되, 노동문제를 일의 세계나 노동자 조직의 문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자로서 체험하는 일밖의 세계도 노동문제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교육의 내용들은 대체로 직업기술, 교양 및 정치 교육 등으로 분화된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의 삶의 총체성을 고려할 때 이들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교육의 내용들 중에는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삶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는 달리, 일의 세계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교육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4. 노동교육의 방법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 전통적인 교육방법이나, 정치교육에서 활용되기도 하는 소위 '선전' '선동'의 교육방법은 노동교육의 비효율성과 비교육성이란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자에게 생활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이론적 지식의 체계적 주입(선전)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노동자의 귀납적 사고방식이 학자들의

연역적 사고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선전에 의해 노동교육이 노동운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목적 자체인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의 주체로서 노동자 자신의 실천적 삶을 매개로 하는 노동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5. 노동교육의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한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 조직의 성장과 함께 노동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최근 그러한 경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노동교육 기관이 교육역량의 부족으로 교육대상인 이질적인 노동자집단에 대해 알맞는 교육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그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비교육적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동안 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태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교육에 준하는 '냉각효과'(cooling-out effect)를 지닌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등장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노동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육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노동교육 본래의 영역을 지켜내야 하겠다.

6. 노동교육의 제도

노동교육 제도는 노동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제도화된 노동교육 기관에서 노동자의 '새로운 학습욕구 충족이 불가능한가' 아니면 '가능한가'의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논쟁이 보다 발전하려면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불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하며, 가능하다면 가능했던 경우들을 실례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7. 노동교육과 사회의 관계

노동교육은 사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중에는, 노동교육이 '학교교육의 한계'라는 사회적 조건(노동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과 학교교육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더욱 잘못되어야 한다는 비교육적 발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등장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노동교육과 학교교육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노동교육이 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의 입장과 '급

진주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노동자 교양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도모할 때만이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반면에, 후자는 노동자 집단의식의 고양만이 사회발전의 의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 보고 노동자 정치교육에 주력한다. 그러나 노동자 교양교육과 노동자 정치교육은 상호 분리된 실체로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자 교양교육과 정치교육을 결합하는 노동교육 이론의 모색이 요청된다.

- 1) Rogin (1970)은 조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시민으로서의 의무수행 및 개인의 발전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반 교양도 Labor Education의 내용으로 삼는다.
- 2) 특정한 조합에서는 도제제도의 전통에 따라,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Carlson, 1971 참조)
- 3) 대학 중심의 Labor Studies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많은 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간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학확장 프로그램을 만든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대학이 노동교육에 관여함으로써 애초의 공리주의적 목표와 내용이 점차 자유교육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Dwyer, 1977).
- 4) 김금수는 다른 글(1988b)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이라고 명명했음.
- 5) 한국노총의 노조간부 양성 및 조합원 훈련과정
- 6)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한국인간개발연구회 등의 노사관계 교육 프로그램 및 각 기업체 자체 내의 연수 또는 위탁교육
- 7) 노동부 관할 노동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 8) 1982년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팸플릿을 통한 논쟁 참조(일송정 편집부, 1990)
- 9) 크게 노동자 교양교육, 기술교육, 정치교육 등으로 분류함.
- 10) 가톨릭노동청년회(J.O.C)는 1994년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년노동자의 여가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 11) Mohamed (1987)는 최근 이런 동향을 기존의 '노동조합교육', '성인자유교육'과 구별하여 '발전교육'이라 명명하고 있다.
- 12) 교육적이라 함은 학습자의 주체적 변화, 구조적 변화, 반성적 변화 등을 의미한다.
- 13) 그림시는 모든 인간이 사회적 기능 면에서 지식인이 아닐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지식인이라고 믿는다.
- 14) NL(민족해방 계열), PD(민중민주주의 계열), NDR(노동해방 계열) 등의 우리사회의 변혁노선 간의 논쟁 참조

〈참 고 문 헌〉

- 김금수(1988a). 노동교육의 발전과 노동교육의 임무. 한국노동교육협회. 노동조합의 길. 제1호. 서울: 도서출판 한결, 5-14.
- 김금수(1988b). 노동조합 교육활동. 사회교육연구. 13, 124-132.
- 김민호(1991). 안토니오 그람시의 교육론.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21, 7-19.
- 김민호(1993). 노동자 교육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인천 '노동자대학' 설립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사회교육학연구 제3권 제2호, 87-110.
- 김성진(1977). 노동자교육의 제문제. 진원중(편). 사회교육의 동향과 좌표. 서울: 배영사, 139-146.
- 김성진(1978). 산업사회와 근로자교육. 한국사회교육협의회 계명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 산업사회와 청소년 성인교육(제3회 전국사회교육지도자 세미나 보고서), 27-39.
- 김수곤(1990). 노동교육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 90-05).
- 김승한(1988). 산업사회와 노동교육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교육연구. 13, 101-113.
- 김신일(1988). 민중교육론의 대두와 사상적 배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실(편). 한국교육현실과 민중교육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47.
- 김윤환(1990). 한국노동교육의 이념과 기본방향.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동교육의 진단과 발전과제 (창립1주년기념 세미나 종합보고서), 3-26.
- 박세현(1990). 노동운동의 현황과 노동자대중교육의 과제. 김성재(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216-244.
- 박창규(1988). 노동교육의 교과과정과 평가. 사회교육연구. 13, 114-123.
- 서인영(1988). 노동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이성과 현실사.
- 일송정 편집부(1990). 학생운동논쟁사. 서울: 일송정.
-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 추진위원회(1993). 노동자정치교육의 기초를 위한 교육정보(팸플렛).
- 정우현(1988). 노동교육의 사회교육적 의의. 사회교육연구. 13, 133-146.
- 정우현(1990). 노동교육의 바람직한 접근방법-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동교육의 진단과 발전과제(창립1주년기념 세미나 종합보고서), 41-66.
- 파울 퇴리히(1986). 노동교육의 교육학적 문제점들에 관한 고찰-역사적 체계적 측면에서-. 재단법인 크리스찬아카데미. 노동운동과 노동교육 ('대화의 모임' 발제 자료).
- Altenbaugh, R. J. (1980). Forming the Structure of A New Society Within the Shell of The Old: A Study of Three Labor College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American Labor Movement. Unpub.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Carlson, K. D. (1971). Labor Education in America.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 Vol. 41. No. 2*, 115-130.
- Dwyer, R. (1977). Worker's Education. *Labor Education, Labor Studies : An Historical Deline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No. 1*, 179-207.
- Hellyer, M. R. & Schulman, B. (1989). Worker's Education. Merriam, S. B. & Cunningham, P. M.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Publishers, 569-582.
- Hoare, Q. & Smith, G. N.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1986). Which Side Are You On? Workers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Workers Education in Asia (Colombo, Sri Lanka, October 23-27. 1986). *ERIC. ED 301 685 CE 051 453*, 65-67.
- Mohammed, C. F. (1987). Development education : The third axis. *Labor Education No. 66*, 32-35.
- Pandey, G. (1986). Meaning of Workers Education.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Which Side Are You On? Workers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Workers Education in Asia (Colombo, Sri Lanka, October 23-27. 1986). *ERIC. ED 301 685 CE 051 453*, 25-34.
- Peers, R. (1972). *Adult education-a comparative study*. London : RKP.
- Rogin, L. (1970). Labor Unions. Smith, R. M., George, F. A. & Kidd, J. R. (ed). *Handbook of adult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301-313.
- Schneider, F. H. (1941). *Patterns of Workers' Education : The Story of the Bryn Mawr Summer School*. Washington : American Council on Public Affairs.
- Whitehouse, J. R. W. (1989). Workers' Education. Titmus, C. J. (ed).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an international handbook*. Oxford : Pergamon Press.
- Youngman, F. (1986). *Adult Education and Socialist Pedagogy*. London : CroomHelm.